문화현실

또다른 상업주의…음성 전화서비스

자본의 논리속에 흡수되는 호기심

정보소비의 시대

각종 일간지, 특히 스포츠 신문에는 최근들어 돈줄광고형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작고 간단한 광고가 있다. 그 감각적인 항목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 유혹과 범람이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드는 이 광고들은 일명 정보전화 혹은 유료 전화서비스라고 통칭되는 것들이다. 일종의 부가가치량제일인 이 전화서비스는 기본요금외에 3백원정도의 요금이 별도로 부가되고 이용안내나 사설시간을 합치면 순식간에 요금이 올라가는 서비스 아닌 서비스인데도 그 종류와 채널수가 근자에 엄청나게 늘어 그야말로 '잘되는 장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여 가요노래방, 전화데이트, 개그, 퀴즈, 역술, 정보 등 각양의 정보 및 문화를 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 항목을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전화가요 Top 10, 건강진단, 음성사서함, 삐삐사서함, 가요이벤트, 스타노래교실, 전화데이트, 개그콘테스트, 구인구직, 신비의 태내음, 프로야구 24시, 데이트, 애인결혼, 사랑만들기, 금연전화서비스, 공포와 전망 AIDS, 멋진 만남을 위한 신나는 전화, 퀴즈특급, 노래방, 아르바이트, 대학 세일 정보, 스무고개 전화퀴즈, 나의 행운색, 애정운, 사랑찾기, 오서방 유머퀴즈, 이영지또 김승현도, 간다간다 왕퀴즈방, 신곡왕창 웬 노래방?, 내마음 나도 몰라, 자연의 소리, U. F. O. 비행음, 흥분퀴즈, 동양철학의 자존심, 나만의 비밀, 질투, 서태지를 찾아라, 재질재질, 별이 빛나는 밤에, 구인안내, 입시속보, 육아정보, 할인속보, 이경규가 알려주는 하늘의 비밀, 스타와 뮤직박스, 전화부동산, 비서실 엿듣기, 진단-나의 매력, 김종국 퀴즈잔치, 가정의학…

그 목록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제필이라기 보다는 오락제일인 이들 서비스는 잡다하고 말초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류의 정보는 실상 정보산업의 하위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정보가 경제활동의 핵심을 이루게 되고 경제적 상품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도와 공정성은 배제하고 정보의 일면성과 소비성만이 극대화된 양상들이다. 그러나 정보의 소비만이 부각되는 이런 현상들은 모든것을 상품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본의 생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기술발전은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양화시켰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양상을 걸어왔다고 할 수도 있다. 전자와 통신의 결합이 낳은 모든 시청각 매체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고 계발, 발전시키고 경험의 폭을 풍요롭게 넓혀주고 있다는 장점은 공인되고 있지만 기술발전 역시 상업주의와 결탁하게 되는 필연성때문에 그것은 인간을 위한 발전이라기 보다는 화폐라는 물질에 의해 제촉된 것이라 하겠다. 청각이 영상과 더불어 인간의 감각활동에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겠고, 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뉴미디어의 도래는 대중매체에서 혐송매체로의 전이과정에서 그 간극에 놓인 소비자 혹은 대중을 혼란케 한다.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최근 뉴미디어라고 총칭되는 디지탈화된 미디어 기술의 총체는 종이가 필요없는 정보전달형태로서 신문, 라디오, TV가 서로 고유적으로 행하던 기능을 통시적으로 결합시켰다. 특히 전파와 통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속도와 수용자의 접촉도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매이한 전송기술, 광섬유 전달기술, 통신위성분배기술의 발전 위에서 시공의 벽을 초월하여 대단위 신속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복합된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통해 정보전달의 다양화를 꾀하는 정보시스템 미디어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뉴미이어는 특정 가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송신하므로 프로그램의 계층화와 세분화 및 전문화로 각 채널마다 상대로 하는 내용까지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선택성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은 기존방송의 불특정 다수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수 특정 가입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페이 퍼 뷰(pay per view)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내용상의 질적인 향상, 각 분야에 대한 정보량 확대를 이루는데 있다. 탈대중매체화는 그 매체경영의 목표를 '문화와 생산성 추구'에 두고 주력하게 된다. 더불어 이의 경영목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같이 부수확장, 시청률의 확대가 아닌 '단골 수용자'의 확보에 치중해야 하며 대규모의 생산구조에서 소규모의 생산구조로 상업성 대신 전문성으로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제 실현되기 전에 상업주의가 틈입하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하고 끊임없는 소비를 부른다.

영상세대와 익명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산업이 상품의 얼굴을 띠게 되면서 아직 선별사용의 의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 정보전화서비스 사례이다.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기심만원, 기백만원이 나와 전화국과 법정시비 사태까지 빚은 몇가지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정보전화서비스의 가장 선호되는 프로그램은 전화데이트와 역술, 노래방이라 한다. 그 이용 계층은 청소년으로서 오디오, 비디오의 민감세대들이라는 사실이 사회학적인 상관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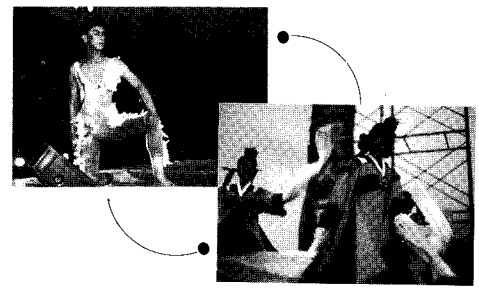
◆연일 스포츠신문에 실리는 유료 전화서비스 광고들

현대사회의 소외에 기생하는 자본의 얼굴

익명성에 기반한 하위문화 극복해야

□공연평

통합예술제 공연을 되돌아보며…



대동제 첫날인 지난 19일 노천극장에서는 음대와 무용과가 공동 주최한 제2회 통합예술제가 열렸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통합예술제는 음대의 연주와 무용과의 고전무용, 현대무용, 발레가 잘 어우러져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편집자註〉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자주경희제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본인은 무용과 조교로서 학부를 졸업하고도 후배들과 함께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5월 19일 이날은 우리 후배학우들에게는 대동제 한마당이 열리는 첫번째 날인 동시에 제2회 통합 예술제에 참가하는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한달전 부터 통합 예술제 준비때문에 바쁜 학업 시간을 쪼개어 지하 연습실에서 밤늦도록 고생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호뭇해하기도 했지만 한편 안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잘 안되는 동작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다시 음악과 맞춰 보고, 여럿이 움직이는 군무는 서로의 호흡을 맞춰 가면서 밤 12시가 넘어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들은 그들의 노력이다. 화려한 꽃이 피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비바람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고생한 우리 후배들은 5월 19일 아침 최종적으로 서로의 느낌을 맞춰 보고, 의상을 체크해 보고, 순서를 확인하는 진지한 모습들이 이름 있는 유명한 무용가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승화되어 보여졌다.

19일 오전에 야외상설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1학년 박소희양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경희의료원으로 달려갔다. 박소희양은 갈비뼈 있는 부분과 오른쪽 머리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예술제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공연을 못하게 된 박소희양은 소리없이 울고 있었다. 무용하는 우리들은 단 한번의 멋진 공연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한다.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상상하면서 우리 무용인들은 남들이 즐겁게 보내는 시간에도 남들이 자고 있을 시간에도 끝맺이 냄새가 나는 연습실에서 자신의 정신력과 싸워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 과정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자신의 자아를 깨달게 되는 것이다.

불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 학우들은 5월 19일 오후 7시, 드디어 통합 예술제를 시작했다. 야외 상설무대앞에 마련된 객석에는 삼삼오오 몰려온 연인들과 타학교 손님들, 그리고 경희 캠퍼스 여러 학우들, 정말 그 숫자는 문예회관 대극장이나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때 정도의 많은 인원이 모여들었다. 음대와 무용과 공동으로 꾸민 이 무대는 젊은 예술 학도들이 꾸민 무대치고는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무대 뒤에서 가슴을 조이며 순서를 기다리는 후배들을 보며 본인이 처음 무대에 섰던 시절이 생각났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내가 무대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관객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그 순간 무사히 공연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두손이 고인 땀을 닦을 수 있었다. 이러한 느낌은 그 유명했던 최승희 선생님, 이사도라 던컨, 뉴델에프, 바리시니코프도 그들 나이 때는 똑같은 심정이었으리라 믿는다.

이쁘게 분장한 후배들은 순서에 맞춰서 공연에 최선을 다했다.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 있는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을 격려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관객들은 행운이들이라고 생각되어졌다. 지금같이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에 이렇게 수준 높은 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행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용의 높은 예술성을 인식시키기에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5월 24일 대학주보사 신문의 6면 내용에 의하면 제2회 통합 예술제는 무의미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의 의식과 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예술제가 되었고, 이 예술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연에 임했던 학생들은 그 주범이 되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

이 논리를 연장해서 해석한다면 퇴폐문화를 조장하며 그날 그 무대 위에 섰던 학생들은 적어도 풍기문란죄로 형치되어야 옳고 그같은 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무용과는 퇴폐문화의 산실처로서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방치 묵인해 온 학교 당국의 행정력과 교육성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며, 교육에 대한 순수성 또한 의심받기에 마땅하다.

위와 같은 논리가 어느 일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경희대학교라는 그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부정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학주보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학생들 역시 그 그늘 아래에서 같은 궤도를 걷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코자 한다면 이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 하루라도 빨리—.

박 해 준
〈대학원석사 3기·체육학〉

□대학주보 제4회 시문에 입선

오 월

최 인 용〈우주과학·3〉

해마다 오월이면
가는 것들이 있었다.

민둥산 등지고
노을 붉게 타는
언덕 너머로
가는 것들이 있었다.

시퍼런 최사슬
철거덕 소리내며
무거운 발걸음을 넘어간다.

흰보따리 머리이고
흐느적 쫓아가는
서글픈 여인의 눈동자
속절없이 지쳐버린
하얀 손들의
너울거림이 있었다.

해마다 오월이면

황토 바람에
눈물 짓는
별들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페미니즘 필름 페스티발 개최

문예기획단 '아이콘' 주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 영화만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말 번역도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채 올해초 '그대안의 블루'(이현승 감독)' 상영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페미니즘 영화 논쟁 속에서 페미니즘 영화가 한 임의단체에 의해 대거 상영될 예정이어서 영화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보으고 있다.(6월28일~7월1일, 연지동 소재 연강홀)

문화예술기획단 '아이콘'이 21세기 새로운 영상문화를 접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갖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페미니즘 필름 페스티발'이란 이름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

여성영화제에서 다루어질 작품들은 'DAUGHTER RITE' 'THRILLER' 'HOUR OF STAR' 등 수십여편에 달한다. 85년작 브라질 영화 HOUR OF STAR는 헐리우드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여주인공이 점쟁이에게서 벤츠를 타고 오는 멋진 남자를 만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꿈에 부풀지만 실제로는 맨스에 치이 최후를 맞는다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그린 작품이다. 시트콘 감독의 79년작 DAUGHTER RITE는 널리 알려진 여성영화로 시트콘 감독은 혁가족의 정신분석적 역능성을 탐구함으로써 롬플렉스와 불안감을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영화제를 기획한 아이콘의 김영씨는 "현재 페미니즘 유를 들먹이며 요란스럽게 광고를 하는 영화는 많지만 진정한 여성영화로 폭넓게 인정된 작품은 없다"고 지적하고 "영화 이론서와 평론가의 비평을 토대로 엄정된 이번 작품들을 통해 참된 여성영화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그대안의 블루'는 그러나 과연 이 작품을 페미니즘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논쟁만 무성한채 결국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올해초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을 거둔 이현승 감독 그대안의 블루'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의 연출 의도에 대해서 그는 "여성괴물인 스핑크스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지만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 하나를 맞춰 죽음으로써 결국은 남성을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고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녀 불평등을 '스핑크스…'에 담아 보았다"고 설명했다.

아이콘은 또한 영화제가 막을 내리는 다음날인 7월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페미니즘영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문화 예술기획실 실장 변재란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영화언어' 발행인 전양준씨가 '여성영화의 개념과 그 발전'을 주제로, 여성학 강사인 정유성씨가 '여성영화의 교육적 효과'를, 그리고 영화평론가 유지나씨가 '여성영화의 현실'을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서며, 주진숙 중대 교수(영화학), 문학평론가 김영애씨, 조혜정 연대 교수(문화인류학), 이현승 영화감독 등 10여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성학의 추이와 접목을 시도하는 심포지엄에는 '그대안의 블루' 해석방법을 두고 열띤 자상논쟁을 벌인 바 있는 유지나씨와 김영애씨가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흥미를 끄는데 지면을 통해서는 못다한 말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애, 창작과 비평 봄호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신세대의 접혼과 일' 유지나, 사회평론 4월호 '그대안의 블루를 둘러싼 텍스트의 오독')

김영씨는 "여성영화에 대한 논란이 절문을 제시하지 못해 한 차례 소란으로 끝나버린 느낌이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지상논쟁의 한계를 극복, 여성영화의 이론과 실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여성영화를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석 記者〉

논란속…여성영화의 방향 제시

못다한 지상논쟁 통로 심포지엄도